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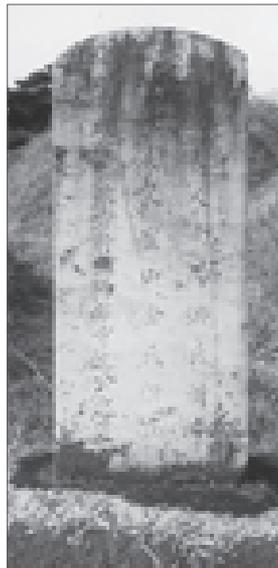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2世祖 贈吏曹判書公 휘 창(諱:昶) 墓碣銘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목회리



▶ 묘표석

공의 성은 沈氏요 휘는 창(昶)이요 字는 원양(元亮)이요 號는 하곡(霞谷)이다. 공의 선대는 경상도 청송부의 사람이니 시조의 휘는 홍부(洪孚)인데 고려조에 벼슬하여 문림랑 위위시승(文林郎衛尉寺丞)이 되었다. 휘 연(淵)을 낳으니 함문지후(閔門祗侯)요 휘 용(龍)을 낳으니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 청화부원군(淸華府院君)을 추봉하였고 휘 덕부(德符)를 낳으니 호는 허강(虛江)이며 삼중대광 좌시중(三重大匡左侍中) 청성군 충의백(淸城郡忠義伯)인데 훈공(勳功)으로 청성백(淸城伯)을 녹봉하고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특별히 좌의정(左議政)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이 되었고 정안(定安)의 시호(諡號)를 내리었으며 휘 온(溫)을 낳았으니 영의정(領議政)으로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을 봉했으며 안효(安孝)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소헌완후(昭憲王后)를 탄생하였으며, 휘 회(淮)를 낳으니 영의정으로 청송부원군(淸松府院君)이며, 공숙(恭肅)의 시호를 내리었으니 三代를 연하여 태보(台輔:宰相)와 훈덕(勳德)이 나라 사기에 실려 있다. 휘 원(源)을

낳으니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으로 증직이 좌찬성(左贊成)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助功臣)이요 휘 순문(諱:順門)을 낳으니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증직이 영의정이니 공에게 고조가 된다. 증조의 휘는 봉원(逢源)이요 호는 효창(曉窓)이니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증직이 좌찬성(左贊成)이요 할아버지의 휘는 건(鍵)이요 號는 경성현(警省軒)이니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로 증직이 영의정이요 선고의 휘는 창수(昌壽)요 호는 성암(省菴)이니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증직이 이조참판이요 어머니는 무송윤씨(茂松尹氏) 증정부인(贈貞夫人)이니 전적 휘 지서(之瑞)의 따님이다.

공이 만력 무인(戊寅:1578)년 5월에 출생했으니 차례가 셋째이다. 어릴 때부터 천품이 엄중하며 들어와서는 효하고 나가서는 공경하고 글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백부 좌의정 문정공(左議政文貞公)께서 여러 조카 중에서 가장 총애(寵愛)하여 공을 취탁하여 아들을 삼았다. 어머니는 광주노씨 첨정(光州盧氏 僉正) 휘 극신(克愼)의 따님

이다. 공이 16세에 이르러 본생아버지 참판공의 喪事를 당하여 집상함이 성인과 같았다. 辛丑(1601)년에 백사 이상국(白沙李相國)의 천거로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제수하여 봉친의 계획을 삼게 했으니 공의 나이 24세이며 문정공(文貞公)께서는 대제학(大提學)으로 계시실 때이다. 이해 군자주부(軍資主簿)에 승진했다가 제천현감(堤川縣監)으로 나가매 온 고을이 크게 다스려졌다. 丁未(1607)년에 부인 김씨가 돌아가매 해직하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유입하기를 바랐다. 戊申(1608)년에 목천현감(木川縣監)을 배수하고 庚戌(1610)년에 지평현감(砥平縣監)으로 전직하였으며 壬子(1612)년에 문화현령(文化縣令)이 되었고 癸丑(1613)년에 진위현령(鎭威縣令)으로 옮기고 또 가평현령(加平縣令)으로 옮기며 치적이 제천(堤川)에 있을 때와 같았다. 甲寅(1614)년 3월에 본생모부인(本生母夫人)의 상사를 당하고 丁巳(1617)년에 양근군수(楊根郡守)가 되었다. 壬戌(1622)년 5월 文貞公의 喪事를 당하여 거의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으며 물과 장을 입에 대지 않은지가 여러 날이 되때 보는 자가 위태롭게 여기었다. 仁祖 甲子(1624)년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매 기복(起復:상중에서 복을 벗고 나옴)하여 고양군수(高陽郡守)가 되매 군사 수천명을 모집하여 연평 이귀(延平李貴)의 휘하에 들어가 임진강(臨津江) 동쪽 길을 방어했는데 괄이 여울 입구로 강을 건넜다. 연평(延平)이 공에게 말을 달리고 들어가 계달하니 임금의 급거 南下함으로 인하여 호가(扈駕)의 종사관이 되어 공주(公州)로 내려가는데 마침 온양(溫陽)에서 도적을 만나 인하여 방어를 맡아 치적이 훌륭했다.

슬프다 戊辰(1628)년 2월에 군청관사에서 돌아가니 향년이 51세이다. 부음이 조정에 들리매 임금이 교지를 내려 말씀하기를 전날 李适의 난리에 심 아무를 기복(起復)시키어 공사를 이행케 한 것이 실상 남의 정례를 빼앗으므로 내가 심히도 결례하였다 하시고 효행으로써 특별히 계급을 올리어 자헌대부 이조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를 증직
→ 2면에 계속

『지방순회 뿌리교육』 실시 안내

종인들간에 친목을 다지고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7·8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지역사정으로 10월 초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1. 교육일자 : 2010년 10월 9일 (토요일)
- 2.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 강당
- 3. 참석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남여 불문)

- ◇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안내 등은 종보 9월호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 연락처 : 청송심씨대중회(02-2267-7857)

青松沈氏 岳隱公宗會 任員改選

顧問：宜洛 宇永 蓮澤 榮燮 琬燮 載涓 揆範 璣潤
諮問委員：明澤 煜 晃澤 祐澤 敬澤 玩澤 炳澤 重澤 相錦 相瑒 相澍 相夏 相喆 相和 涓燮 應燮 聖輔 崙輔 在吉 元基 泳秀 璋壽 義祚 採銖
會長：宜七
副會長：相學(常任) 相哲 相彥 輝燮 東燮 禹燮 光輔 洙鍾
監事：相稷 載仁
總務理事：相七
運營委員：相海 載洪 源澤 相撤 泰燮 相基 大用 水澤 林燮 載華 載坤 在千 基祚 善澤
理事：
(영동정공파) 能光 相國 華燮 琬澤 相國 廣燮 性燮 圭煥 鎮澤 相大 完燮 相秀 遠燮 相國 相庭 相翰 鎬燮 昶燮 吉澤 相龍 惠澤 弘燮 相潤 極澤 周燮 相瑄 光夫 相益 상운 相祚 한섭 完圭 相燻 好雄 範燮 銀燮 相培 呂澤 洪燮 양섭 相杰 相坤 載勳 載斗 載均 載伍 載一 福澤 田澤 相穆 大澤 壽澤 勳 時煥 昌燮 鍾燮 載太 羽澤 仁燮
(현령공파) 上輔 文輔 春一 動輔 賢輔 揆泰 千輔 義輔 葵輔 奇秀 正秀 揆哲 揆燮 大用 太用 正用 斗用 상욱 準用 澤 器煥 鎮奎 胤燮 茂燮 大燮 君燮 貴文 榮周 載和 在甲 致輔 賢輔 春澤 相熹 漢澤 任澤 鉉燮 成五 相贊 辰澤 載元 文輔 載旭 仁輔 周輔 두현 중택 상돈 명섭 재길 이섭 상두 星昊 龍鎮 煥圭 在成 正燮 箕鎮 載弘 훈도 영보 應漢 載琪 慶輔 相彥 珍燮 正煥 永煥 揆洪 聖揆 龍揆 中輔 周杰 揆守

했다. 고양시 목희리(高陽市木稀里) 선영 아래 壬坐의 언덕에 안장했다. 대개 공의 효가 천성에서 우러났으므로 화평한 소리와 부드러운 용모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생양정(生養庭)의 부모를 섬기되 뜻을 기르며 감지(甘旨)의 공양을 조금도 게을리 않고 백·중·숙·계(伯·仲·叔·季)와도 화열을 힘써서 일에 따라 규간하고 일깨웠으며 기거에도 항상 법도가 있고 그치고 나감에도 항상 일정한 곳이 있었다. 전후의 상사에 여막에서 거처하고 최복(衰服)을 벗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리어 일찍이 대항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그 효우를 탄복했다. 관직에 있어서는 학교를 높이 숭상하여 士林에서 인재를 기용하고 무당을 통금하며 부호를 누르고 빈약을 구제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관리를 단속하여 온 고을이 크게 다스리니 제천, 양근, 온양에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여러 번 郡畵에 전보되었으나 청백(淸白)으로 표본을 삼고 사탁(私橐)은 계교하지 않으므로 평생 염치와 절조가 한사(寒士)의 양상과 같으니 朝野에서 그 돈독한 뜻을 감탄하며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애석히 여기었다. 초배(初配)는 증정부인(贈貞夫人) 풍산김씨(豊山金氏)니 아버지는 찰방(察訪) 휘명현(命賢)이요 할아버지는 봉사 휘 박(縛)이요 증조는 부정(副正) 히 순정(順貞)이요 외조는 첨정 노극신(盧克愼)이니 光州사람이다. 庚辰(1580)년 7월에 출생하여 丁未(1607)년에 돌아갔으니 향년이 28세이다. 後娶配位는 증정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니 아버지는 진사 율(栗)이요 할아버지는 판관 휘 병성(病聲)이요 증조는 현감 휘 염(廉)이요 외조는 유태노(柳泰老)니 文化사람이다. 壬辰(1592)년

5월에 출생하여 壬子(1672)년 10월에 하세했으니 향년이 81세이다. 3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유훈(儒訓)인데 유일(遺逸)로 진선(進善)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음에 호조 판서를 증직했다. 다음 아들은 유행(儒行)이니 文科로 집의(執義)인데 좌찬성(左贊成)을 증직했다. 다음 아들은 유업(儒業)인데 절충부보군(折衝副護軍)이다. 장녀는 현감 원진해(元振海)에게 시집갔으니 원주사람이요 다음은 통제사 유정익(柳廷益)에게 시집갔으니 문화 사람이요 다음은 이지복(李志復)에게 시집갔으니 전주사람이다. 유훈(儒訓)은 판서 청도 김진선(淸道 金振先)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6녀를 낳았으니 장남 빈(彬)은 진주 유부(晉州柳溥)의 딸에게 초취하고 경주 김중현(慶州金重鉉)의 딸에게 재취했다. 다음 아들 박(樸)은 별시무과(別試武科)에 급제하여 통제사 포도대장(統制使捕盜大將)을 거치어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초취는 창원공씨(昌原孔氏) 찬(贊)의 딸이요 후취는 정선이씨(旌善李氏) 부사과 성일(副司果成鎰)의 딸이다. 셋째 아들은 근(根)이니 진주하씨 제윤(晉州河氏濟允)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장녀는 전주 이시필(全州李時秘)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원주 원진택(原州元振澤)에게 시집갔으니 文科로 정언(正言)이요 다음은 수원 백창문(水原白昌門)에게 시집갔으니 무과로 통정(通政)이요 다음은 문과로 학유(學諭)를 지낸 전주 이만림(全州李萬林)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영천 이정빈(永川李廷彬)에게 시집갔다. 유행(儒行)은 군수 안동 권담(安東權統)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 재(宰)는 文科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치어 판중주(判中樞)에 이르렀으

며 도사(都事) 경주이상건(慶州李象乾)의 딸에게 장가들고 딸은 해주 오시태(海州吳始泰)에게 시집갔으니 공조좌랑(工曹左郎)이다. 유업(儒業)은 後孫이 없으며 원진택, 유정익, 이지복의 후손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정부인 두분의 묘소는 건위(乾位)와 품(品)자로 봉분이 되어있다. 불초손(不肖孫 박(樸)이 참람 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공의 행장을 들어서 외람되어 명(銘)을 지으니

銘에 이르기를
오직 공이 성품은 간엄하고 청정(淸貞)하였네 일찍이 정훈을 답습하여 시와 예가 숙성하였네.
백사(白沙)가 천거하여 일찍 벼슬길에 나갔네 먼저 堤川을 맡으니 온 고을이 안정되었네.
高陽에서 李适이 난을 일으키매 군사 수천명을 모집하여 임진강을 방어하니 이팔이 이미 배를 건넜네.
말을 달리어 임금께 주달하고 호가(扈駕)하여 남하하였네.
이해 溫陽을 지키다가 천수로 마쳐졌네.
조정에 부음이 들리니 위에서 애도하여 특별히 성전(盛典)을 내리었네.
후손에게 복록이 드리워서 혁혁하고 면면하였네.
비를 세워 銘을 새기니 목희(木稀)에 세전(世阡)이네.

자헌대부 행 삼도통제사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 불초손 박(樸) 삼가지음.
통정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겸 병마절도사 안찰사해주목사 증손 仲良 삼가 씀. - 끝 -

畫仙 (玄齋 沈師正)

賀雲 沈重熹

빙기옥고(氷肌玉膏)¹⁾ 고운 철엔 허강(虛江)을 상념(想念)하시고
황화홍엽(黃華紅葉)²⁾ 달 밝으면 만사(晩沙)를 그리시며
청송(靑松)에 화벌(華閼)을 다져 천하(天下)에 알리셨구나.

만사(晩沙)의 영기(靈氣)에서 웅장(雄莊)한 탐미(探美)의 길을 찾아
우주(宇宙)의 오묘(奧妙)함을 영모(翎毛)³⁾로 즐기시며
인생(人生)의 참 맛을 홍련초목(紅緣草木)에서 보셨구나.

사대부(士大夫) 준엄(峻嚴)한 허강(虛江)의 가풍(家風)을 뚫고
환장이가 되어 세상(世上)에 우뚝 서셨으니
천수만화(千獸萬花)가 님을 반겨 화선(畵仙)인듯 노는구나

서너살에 형상방원(形狀方圓)의 본성(本性)을 깨우치시고
화선지(畵宣紙)를 펼쳐 휘들으신 화필(畵筆)은
중원(中原)⁴⁾을 거쳐 온 누리를 흔들었구나

보아라 국가(國家)의 융성(隆盛)을 위해 권세(權勢)를 부리고
민족(民族)의 긍지(矜持)를 위해 화필(畵筆)을 휘들으신
만고(萬古)의 푸른 청송(靑松)의 의연(毅然)한 모습을

의(義)를 위한 정기(正氣)로 천하(天下)의 스승이 되어
서슬푸른 칼날에 여러(麗麗)한 꽃을 피우시고
배부른 자(者)들에게 마음의 양식(糧食)을 주셨구나

맹호(猛虎)⁵⁾의 안광(眼光)으로 세상(世上)의 비리(非理)를 살피시고
타오르는 단풍(丹楓)⁶⁾에서 인생(人生)의 애수(哀愁)를 보셨으니
바람자는 청송(靑松)에 님의 화영(畵影)이 고읍구나

얼 빠진 북종(北宗)⁷⁾의 산수(山水)를 허공(虛空)에 던지시고
알 찬 남종(南宗)⁸⁾의 화풍(畵風)을 실 없다 하셨으니
통관(通觀)한 님의 예혼(藝魂)에 금수(錦繡)⁹⁾가 장려(莊麗)하구나

한매(寒梅)의 인고(忍苦)에서 님의 사상(思想)을 헤아리고
상국한엽(霜菊寒葉)에서 님의 의지(意志)를 알았나니
일월(日月)이여 영모(翎毛)의 혼백(魂魄)을 불러 현재(玄齋)를 찬송(讚頌)케 하라
중생제도(衆生濟度)를 위해 관음대상(觀音大像)¹⁰⁾을 그리시고
나라의 융운(隆運)을 위해 성관음상(聖觀音像)¹¹⁾에 점청(點靑)하셨으니
님의 자비(慈悲) 님의 공덕(功德)이 온 누리에 충만(充滿)하구나

문무(文武)를 겸(兼)한 허강(虛江)의 의연(毅然)한 정신(精神)으로
구름을 타고 용(龍)¹²⁾을 호령(號令)하는 화선(畵仙)이 되시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세상(世上)을 바로 잡으려 하셨나니

천시(賤視)의 환장으로 은인자중(隱忍自重)하시며
휘들으신 화필(畵筆)은 영모(靈妙)한 기운(氣韻)이 되어
겨레의 유원(悠遠)과 더불어 약동(躍動)하리라

2010年 5月 三角山麓 默思軒에서

註
1) 氷肌玉膏 : 梅花의 별칭, 玄齋의 梅花圖 : 여기서는 봄철을 뜻함
2) 黃華紅葉 : 國花 단풍, 玄齋의 花木圖 : 여기서는 가을철을 뜻함
3) 翎毛 : 새와 짐승의 그림, 玄齋의 翎毛圖
4) 中原 : 중국
5) 猛虎 : 玄齋의 猛虎圖
6) 丹楓 : 玄齋의 丹楓圖
7) 北宗 : 技巧는 能하나 內實이 없다는 北宗畵
8) 南宗 : 思想은 充滿하나 精巧한 描寫를 無視한 南宗畵
9) 錦繡 : 大韓民國 別稱 錦繡江山
10) 觀音大像 : 玄齋의 觀音大像圖

11) 聖觀音像 : 玄齋의 聖觀音像圖
12) 龍 : 玄齋의 雲龍圖
- 記 -
현재(玄齋)는 확실히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보통사람이 감지(感知)하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느껴 아시고 범부(凡夫)가 이해(理解)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헤아리시고 현자(賢者)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옳고 바르게 분별하시는 천재였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미술가(美術家)들이 명청대(明清代)의 북종(北宗) 남종(南宗) 양대화풍(兩大畵風)에 의거해 그림을 그렸어도 현재(玄齋)는 그런 화가(畵家)들과는 거리(距離)를 두고 현재(玄齋) 고유의 개성적(個性的)인 미혼

(美魂)에 의해 화필(畵筆)을 구사(驅使)하였다. 현재(玄齋)의 독자적(獨立的)인 화법(畵法)을 조선시대의 국내화단(國內畵壇)은 물론 중국인까지 주목(注目)하는 놀라운 대상(對象)이 되었다. 현재(玄齋)의 독자적이요 창의적(創意的)인 화법(畵法)의 원인은 전통적(傳統的)인 조선(朝鮮)의 문화(文化)와 수려(秀麗)한 조선의 산수(山水)에 있다. 현재(玄齋)는 그러한 문화(文化)의 정수(精髓)와 산수(山水)의 영기(靈氣)로 모필사상(慕筆思想)으로 부패(腐敗)하고 타락(墮落)한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들을 징계(懲戒)하거나 요직(要職)에서 추방(追放)하고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새로운 근거(根據)를 확립(確立)하려고 하였다.
필자(筆者)는 저술(拙著) 「청송원류지곡(靑松源流之曲)」
→ 3면에 계속

에서 이성계(李成桂)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시대적(時代的) 당위성(當爲性)을 밝힌바 있다. 그 당시의 혁명은 역사적(歷史的) 필연성(必然性)에 의한 국가(國家)의 소멸(召命)에 의한 것이다. 모필사상(慕筆思想)에서 헤아날 줄 모르는 사대주의자(事大主義者)들의 반국가적(反國家的) 반민족적(反民族的) 부정(不正)과 비리행위(非理行爲)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국가(國家)의 기강(紀綱)을 바로잡고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정리(整理)하고 민생(民生)을 안정(安全)시키기 위한 역사적(歷史的)인 쾌거(快舉)였다. 이 혁명을 긍정적(肯定的)으로 이해하고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조선국(朝鮮國)을 창건(創建)하는데 공훈(功勳)을 세운 정안공(定安公) 심덕부(沈德符)의 자손(子孫)이 바로 현재(玄齋)였다. 정안공(定安公)의 자손으로써의 긍지(矜持)와 자존심(自尊心)과 우월감(優越感)이 중국미술계(中國美術界)의 사상(思想)과 조류(潮流)를 부정적(否定的)으로 인식(認識)케 하였고 조선미술(朝鮮美術)의 전통적(傳統的)인 특이성(特異性)을 국내외(國內外)에 주지(周知)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개성적(個性的)인 인간(人間)으로서의 현재(玄齋)가 중국의 미술사조(美術思潮)를 거역(拒逆)하고 조선(朝鮮)의 자주(自主)와 평화(平和)를 위해 독보적(獨步)인 미술계(美術界)를 개척(開拓)하고 발전(發展)시켜 보려고 전심전력(全心全力)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계(李成桂)와 심덕부(沈德符)는 국가의 영원성(永遠性)을 확고(確固)하게 하기 위해 혁명을 완수(完遂)하였고 심사정(沈師正)은 권세(權勢)로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는 배부른 자(者)들에게 마음의 양식(糧食)을 주기 위해 환장이가 되었던 것이다. 덕부(德符)의 의지(意志)와 정신(精神)을 이어받은 현재(玄齋)는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새로운 진로(進路)를 확립(確立)하기 위해 참으로 말 못할 고독(孤獨)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사이 소위 미술평론가(美術評論家)라고 하는 자(者)들이 현재(玄齋)의 사상(思想)과 예술(藝術)을 논평(論評)하는 것을 보면 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否定)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玄齋)의 예술(藝術)과 사상(思想)을 근본적(根本的)

으로 이해함이 없이 피상적(皮相的)으로만 이해하고 주관적(主觀的)인 평판(評判)을 하기 전에 현재(玄齋)의 가문(家門)인 청송화별(靑松華閥)의 형성과정(形成課程)과 발전과정(發展課程)을 역사적(歷史的)인 견지에서 고찰(考察)하지 않으면 현재(玄齋)의 미술과 사상(思想)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이해(理解)와 판단(判斷)은 불가능할 줄로 믿는다.

필자의 「화선(畫仙)」을 계기(契機)로 현재(玄齋)의 미술(美術)과 사정(師正)의 사상(思想)이 문내외로(門內外)로 재조명(再照明) 되는바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부연(敷衍)할 것은 정안공(定安公)의 아호(雅號)가 신구문화사간(新丘文化社刊) 한국인명사전(韓國人名辭典)에는 허강(虛江)으로 나와 있는데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노강(盧江)으로 되어 있다. 아호(雅號)의 특성(特性)과 그 의미(意味)로 보아 허강(虛江)이 맞는 것 같다. 현재(玄齋)의 증조부 심지원(沈之源)의 호(號)는 만사(晩沙)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 끝 -

예절(禮節) 한 토막 ②

■ 세배(歲拜) 바르게 하기

세배는 설날에 새해인사로 하는 절이다. 세배의 절은 위에 말한 남녀의 절을 경우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배는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세배할 대상을 만나면 즉시 하는 수시세배(隨時歲拜)가 있고, 온 가족이 모두 큰방에 모여서 차례로 하는 의식세배(儀式歲拜)가 있다.

○ 수시세배

설날 세배할 어른을 뵈으면 뵈는 즉시 세배를 한다. 설날 차례를 지내려고 큰댁에 가면 거기에 모인 어른께 바로 세배를 하는 것이 수시 세배이다. 설날이 아니라도 어른을 뵈으면 문안 절을 하는 것인데 그 문안 절을 세배로 간주하는 것이다.

○ 의식세배

큰댁에 가서 어른을 뵈으면 문안 절을 올리고 설날차례를 지낸 다음에 모든 가족이 큰방에 모여서 정식으로 세배를 하는 것이다.

1. 제일 높은 어른이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북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로 남편들이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아내들이 서쪽에서 동향해 선다.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은 남

쪽에서 북쪽을 향해 공수하고 서있다 모든 부부가 동시에 자기의 배우자에게 평절로 세배를 한다. 제일 어른 남자가 자기부인에게 새해인사(德談)를 하고 부인도 남편에게 인사를 한다. 아랫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여 동감을 나타낸다. 만일 제일 웃어른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웃어른이 북쪽에서 남향해 앉고 아랫사람들이 북쪽에 어른을 향해 큰절로 곁절(남자는 재배, 여자는4배)을 한다. 그리고 모두 북향해 앉아서 새해인사를 여쭙고 모두 일어나서 부부간에 맞절 세배와 덕담을 나눈다. (이 때 제일 웃어른에게 같은 세대 아랫사람이 있으면 앉지 않고 서있다. 2번과 같이 하는 것이다)

2. 윗어른 부부가 男東女西로 어른의 옆에서 남향해 앉는다. 만일 같은 세대 동생이나 제수가 있으면 앉지 않고 남향해 선다.(같은 세대의 절에 맞절을 하기 위해서이다) 아랫 사람들이 같은 세대 아랫사람의 절에는 평절로 한번절하고, 아랫세대는 곁절을 한다. 남향에선 웃어른은 당연히 같은 세대 아랫사람의 절에 평절로 맞절로 한다.
3. 다음어른이 북쪽 어른의 옆에서고 (앉고) 아랫사람들이 ②번과 같은 방법으로 세배를 한다.
4. 제일 아랫사람이 바로 위의 형이나 누이에게 세배를 할 때까지 2, 3번의 행사를 반복한다.
5. 모두의 절이 끝나면 함께 둘러앉아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과 기대로 새해인사를 나눈다.
6. 어른은 별이 없는 아이들에게 푼돈으로 세뱃돈을 주며 칭찬하고 격려한다.
7. 온 가족이 떡국을 먹고 설날의 놀이 등으로 즐긴다. 이

어서 집안 어른이나 마을어른 은사 기타 직장어른 동료 선배를 찾아가서 새해인사를 나눈다. 설날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음식을 세찬이라 한다.

○ 설날 명칭의 유래와 설날의 역사

설날은 인류사가 시작되고 春夏秋冬 4계절을 의식하면 서부터 명절 이었고 그 명칭도 생겼다. 봄이 시작되는 날을 봄이 선다고 해서 입춘이라 하고, 여름의 시작을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이라 한다. 새싹이 움트는 봄이 그해의 시작이고 해가 시작되니까 해가 서는 날이라 해서 설날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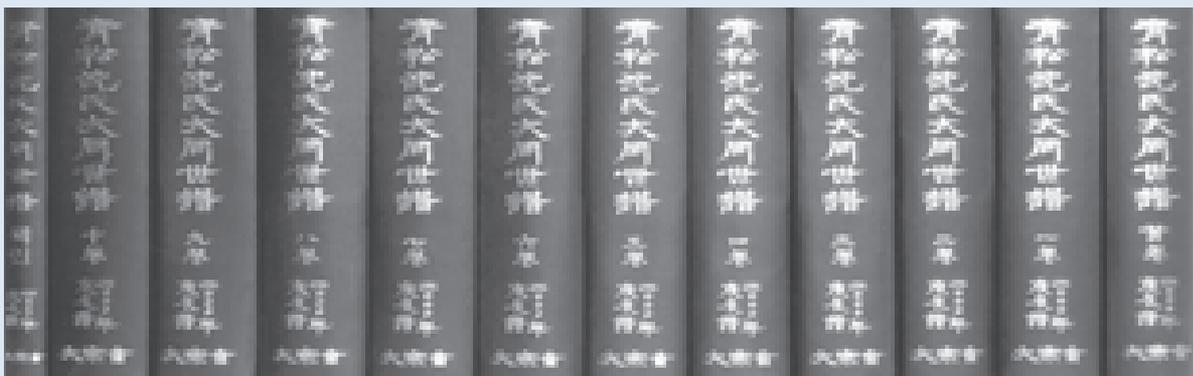
설날의 시작은 서기전 2698년부터 황제헌원(黃帝軒轅)씨가 육갑(六甲)을 썼는데 동지(冬至)가 든 11월을 한해의 첫 달인 자월(子月)로 한 것으로 보아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冬至)날을 해가 서는 설날로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먹을 것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움트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이 든 지금의 정월이 시작되는 음력 1월 1일을 해가 시작되는 설날로 한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양력 1월 1일부터 생활력(生活曆)으로 쓰면서 양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우겨냈지만 너무 추운 때라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계절의 시작과 거리가 있어 해의 시작인 명절로는 다가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89년에 다시 음력 1월 1일이 우리의 설날로 되찾아졌다.

- 理事 洪燮 -

<다음호에 계속>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종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사(譜事)관련 일반상식

1 족보의 意義

족보란 씨족간에 만들어진 가족의 계통을 기록한 서책(書冊)으로 일족(一族)의 혈통과 가계(家系)를 알고 동족의 단결과 보나온 활동을 추진 하 기위한 값진 씨족의 보감(寶鑑)이다.

2 족보의 목적

첫째 : 종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족인(族人)은 모두 동일 시조(始祖)에서 나왔다는 종족의 관계를 깊게 하고 깊은 혈연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종(從)의 자각(自覺)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 : 그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그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동일 시조상의 혈연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깊게 하도록 하고 선조들이 자손을 아끼는 마음을 생각하여 족인 상호가 서로 상부상조(相扶相助)를 여행(勳行)하도록 하며 가족의 사회적 성망(聲望)을 높여 선조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족보의 종류

대동보(大同譜)
득성조(得姓祖) 또는 비조(鼻祖:원조)의 후계 中始祖마다 분관(分貫)하여 각관시조로 한 씨족간에 대동하여 합보 한 족보를 말하며 한 성씨의 시조 이하 동계혈족의 동족간에 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하여 집대성한 것이며 각 파의 분파조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통을 수록함을 말한다.

파보(派譜)
동일선계의 시조이하 분파된 해당 파계만을 수록 편수하고 있고 각파의 문중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할 수 있으며 동일파계의 동족은 빠짐없이 납단(納單)하여 보사(譜事)에 참여함으로써 파손(派孫)으로서의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보(世譜)
동일종파 이상의 시조 이하 각 파계를 동보(同譜)로 함을 말하며 내용은 파보와 동일하다.

계보(系譜)
시조이하 동족간의 계통과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名, 諱, 字 만을 수록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가승보(家乘譜)
가승이란 시조이하 중조 파조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직계존속만을 수록 한 가첩(家牒)을 말한다. 본인의 고조부 이상은 직계선조만을 수록하고 이하는 전부 수록하여 재종, 삼종, 형제자매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만성보(萬姓譜), 종보(縱譜), 횡간보(橫間譜)가 있다.

4 족보관련 용어

시조(始祖)
성(姓)을 처음으로 갖게 되거나 개관(改貫)한 분의 초대 즉 시조의 선조를 말한다.

비조(鼻祖)
이전의 선계(先系)조상을 일컫는데 시조나 중시조를 높여 부를 때에도 비조라 한다.

중조(中祖)
시조이하의 계대에서 가문을 중흥시킨 선조를 종종의 공론에 의하여 추존(追尊)하여 중조라 한다.

선계(先系)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선대조상
세계(世系)
시조나 파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

본관(本貫)
시조 또는 중시조의 출신지와 씨족의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며 관향(貫鄉), 향적(鄉籍)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
先王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거나 文武官 중에서 實職이 正2품이상 되는 官員이 별세하면 그분의 行蹟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追贈)하는 이름
靑城伯 4세조는 정안(定安)이시며 우리 신문에서는 31명이 시호를 받으셨음.

호(號)
(문인, 화가, 학자 등이) 본이름 외에 따지어 부르는 이름으로 學德이 높은 선비에겐 친지나 제자들이 號를 지어올림

군(君)
조선조(朝鮮朝)에서 왕실의 종친이나 나라에 공훈을 세운 勳臣에게 君이라는 존칭을 내려 특별한 禮遇를 하던 제도 封君에는
1) 大君 : 왕비가 낳은 王子
2) 君 : 후궁소생의 王子, 大君의 長子와 長孫, 二品이상의 宗孫, 功臣, 功臣의 아버지 또는 상속자
3) 府院君 : 왕의 장인, 일등공신(正一品공신)
※우리 신문에서 封君되신 선조님은 33명

항렬(行列)
혈족의 세계(世系)에 대한 代數를 나타내는 돌림자이며 같은 혈족 사이에 世系の 위계(位階)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마련한 것이며 이는 문중율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사손(嗣孫)
한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의 정통을 받아 있는 자손을 말한다. 또한 사손(祀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奉祀孫(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을 말한다.

종손(宗孫)
종가의 맏손자를 종손이라 하는데 대종가의 종손을 대종손 차차 계통의 맏손자는 장손이라 한다.

배위(配位)
배우자를 말하며 일명 비필(妃匹)이라고도 하는데 보첩에는 配자만 기록한다.

세(世)와 대(代)의 의미
(世) : 시조를 1世로하여 아래로 후손을 차례로 가리킬 때에는世를 붙여쓰며 자기를 숫자에 넣어 계산하여 世를 붙여 쓴다.

(代) : 自己로부터 위로 先祖를 가리킬 때에 자기를 빼고 차례로 따져 代를 붙여 쓴다.

※ 예 : 대동보 항렬 載字 항렬의 경우
- 世 : 始祖 文林郎公의 25世孫이고
- 代 : 始祖 文林郎公은 24代祖이다.
- 직계(直系) : 종(從):4~5촌, 재종(再從):6~7촌, 삼종(三從):8~9촌, 사종(四從):10~11촌
※10촌 이상의 조부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夫)라 한다.

5 묘소(墓所)

묘소의 의미
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족보에는 묘가 위치한 방위와 좌향(坐向)과 비석 등의 유무와 합장여부를 기록한다.

성묘(省墓)
조상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산소를 살피는 일

사초(莎草)
무덤에 때를 입히고 다듬음. (흔히 寒食에 함)

도장(倒葬)
자손을 부조(父祖)이상의 묘지 윗자리에 쓰는 것

투장(偷葬)
남의 묘지에 주인 몰래 암장(暗葬)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도장(盜葬)이라고도 한다.

고총(古塚) : 오래된 무덤

묘지(墓誌)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으로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돌등에 망인의 관성명(貫姓名), 생졸년월일, 묘의 위치, 자손의 이름 등을 간략하게 새겨 무덤 앞에 묻는 돌이나 도판(陶板)을 말한다.

석물(石物)
무덤 앞에 돌로 들어놓은 물건, 石人, 石獸, 石柱, 石燈, 床石.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이나 또는 녹고지(綠故地)의 길목에 세워 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하며 神道라는 말은 망인의 묘로(墓路)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이다.

사적비(事蹟碑)
오랜 동안에 걸쳐 있었던 일이나 사건의 자취를 쓴 碑

유허비(遺墟碑)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碑

사당(祠堂)
조상의 신주[神主 : 망자의 位牌를 말하며 위패는 신주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불천위(不遷位)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神位)이다.

부조묘(不祧廟)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도 하며 이는 덕망이 높거나 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神主를 영구히 모시고 제사 지내게 하는 사당으로 왕실에서 恩典을 베푼 신위를 뜻함.
※ 우리 선조님의 부조묘는 모두 11분이시다.

- 문화부 -

沈영감 심면서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各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중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기대포함: 180,000원)	

본바탕

심 환 섭

너와 내가 날 때부터
본바탕이 악인이나

세상살이 취해 놀다
욕심부려 재산 모아
흥청망청 살다 보니

주머니 없는 수의 입고
떠날 때는 저녁 때라

세상살이 알고 보면
부는 바람 파도 일고
오는 구름 비를 내려
알고 보니 허무한
꿈이었네.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諱:溫) 端午節祀 奉行

(陰: 5월 5日 端午)



初獻: 行鎮 亞獻: 載榮 終獻: 成輔
執禮: 相弘 大祝: 相直 執事: 應植 成鎮

六世祖 恭肅公 配位 忌辰祭 奉行

6월 19일(음: 5. 10)



初獻: 仁輔 亞獻: 상호 終獻: 相雄
執禮: 洪燮 大祝: 相弘 執事: 相晚 相瑞

恭肅公 養父 康主 簿公 奉享會

任員名單 2010년 6월 30일

- 顧問: 堯澤 達燮 斗燮 龍錫
- 諮問委員: 行鎮 相泳 寬錫 成輔 正輔
- 會長: 永澤
- 副會長: 相八 載烈 宇正 龜錫 鑄澤
- 監事: 相直 載玉
- 運營委員:
 - 光燮(공숙공) 載爽(이경공) 吉燮(수찬공)
 - 相烈(내자시 관관공) 洪燮(효창공)
 - 奉燮(중익공) 相慶(신전공) 良燮(수운 관관공)
 - 淸澤(준천 신전공)
- 總務: 種福(仁輔)
- 都 有 司: 鉦圭(선산) 天錫(선산)
- 義孫奉祀: 李昌鏞 李載暎 李載和
- 信川康氏: 康鍾鎮
- 理事:
 - 光澤 春澤 萬澤 相達 相勳 相厚 相英 相弘
 - 相汶 仲根 憲燮 興燮 百燮 康燮 良燮 明燮
 - 正燮 奉燮 載晃 容圭 載澈 載德 載緒 載善
 - 載文 載勳 載滿 允輔 元輔 雄輔 俊輔 左輔
 - 一用 賢錫 海哲 相瑞 厚燮 忠澤(공숙공 감사)
 - 載洪(효창공 종무) 相烈(원주)
 - 鎮燮(내자시 종무) 光燮(도내리) 光燮(대치동)
 - 봉섭(대전) 載洪(구미)

소헌왕후 생애 (昭憲王后 生涯)

1395(태조 4)~1446(세종 28). 조선 제4대왕 세종의 비. 성은 심씨(沈氏). 본관은 청송(靑松). 문하시중 휘 덕부(諱 德符)의 손녀이고, 영의정 휘 온(諱 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 도(禔)와 가례(嘉禮)를 올려 빈(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 국대부인(三韓國 大夫人)에 개봉(改封)되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9월에 내선(內禪)을 받아 즉위하니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궁(中宮)에게 미칭(美稱)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우 종(誼)이 군국대사를 상왕(上王: 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대역(大逆)의 옥사(獄事)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폄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일축되었다.

1446년에 52세로 하세하시어 현릉(獻陵)에 장사지냈다.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다.

《영릉지 英陵誌》를 예조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제출하였다. 휘호는 선인제성(宣仁齊聖), 시호는 소헌(昭憲)이다.

(자료출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실)

安孝公宗會 2010年度 定期總會 開催

2010년 6월 16일(陰 5월 5일 端午) 오전 10시에 안효공 할아버님의 墓前에서 종인 450여명이 참석하여 端午절사를 봉행하였다. 제향봉행을 마치고 10시 50분부터는 재실마당에 마련한 회의장(의자 500개의 좌석을 마련하고, 동재 서재 기타)에서 종인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行鎮 會長님의 인사 말씀과, 載玉 총무이사의 총회보고내용 2009년도 및 당면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이어서 2009년도 결산(안)심의 승인의건 文洙監事の 監査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相弘재무이사로부터 2009년도 결산보고와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건, 의결권 위임승인의 건, 장학(문화)사업추진승인의 건, 임원해임(안)승인의건(유보 상태), 등을 총회 절차에 따라 가결하였다.



▲ 2010년 정기총회 광경

총회를 끝내고 순서에 따라 圖書 안효공 山義室記, 선

물 세트, 도식탁을 받아 나무그늘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근황과 정담을 나누며 一家간에 우의를 다졌고 이 모든 것이 안효공 할아버지의 음덕을 기리며 오늘의 행사를 끝냈다.

- 문화부 -

「대중회 40년약사」 발간 관련 자료수집

■ 宗報 및 회의자료

대중회 40년사를 今年末 발간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자료로 더욱 훌륭한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오래된 資料中 다음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全國宗人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靑松報(靑松沈氏 宗報) 발행 1955년~1957년)
 - 第 2 輯 ~ 第10 輯 (9 권)
 - 第12 輯 ~ 제14 輯 (3 권)
 - 第17 輯 (1 권)
- ◇ 오래된 宗事 關聯資料

예: 1900년대 ~1960년대 청송심씨 宗事관련 회의 또는 모임자료

- 알 림 -

■ 대중회 會長團 및 理事 전원 사진제출

- ◇ “대중회 40년약사”에 게재 할 갈라사진 반명함판(가로 3cm×세로 4cm) 1매 (사진 후면에 이름, 지역, 전화번호 기재요망)
- ※ 자료(사진포함) 제출기간: 2010년 8월 31일까지
- ※ 자료 송부처
 -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10번지
 - 청송심씨대중회
 - 우편번호: 100-310
 - 연락처: 02) - 2267 - 7857

靑松沈氏大宗會 文化部



「40여년 교단 지킨」 沈正輔 校長

고향마을에 가족묘원을 조성하고 1,000여 그루 매실수 심어...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시골집 앞 텃논에 개구리 우는 소리가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을 보니 여름이 들뜬을 점령했다는 신호가 분명하다. 농가 마당에는 모란이 한창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모란처럼 쉬지는 꽃도 별로 없다. 온 세상이 꽃이 천지 더니 어느 새 초록빛 일색이다.

꽤나 더운 초여름 날씨 지난 6월 초 순 정오가 조금 지나 경북 예천시내 새대구 숲불고기 집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옛 친구. 고향과 처갓집이 한 고장이라는 교육계의 원로 沈正輔(76. 원주시 개운동) 노교장을 만났다. 식당에는 심교장과 한마을에서 초·중 학교까지 같이 다녔다는 전 예천군 농업조합장 양모씨와 함께 불고기백반으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43년을 교단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심교장은 가끔 서울 아들집을 오고가는 길에 종로 5가 광일다방에서 만나 차 한잔씩 나누면서 교직에서 은퇴 후 고향에 마련해 둔 자신의 신후지(身後之地 : 죽기 전에 미리 잡아 둔 뒷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며 한번 와 보라는 말에 차일피일하다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예천행 버스에 올라 어렵게 한번 나들이하여 만나게 되었다.

沈校長은 자신의 뒷자리 뿐 만 아니라 몇 해 전에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高祖할아버지·할머니 묘를 비롯하여 曾祖·祖·父母 묘소까지 모조리 고향마을 뒷산자락에 가족묘원을 만들고 이곳에 모두 이장했으며 가족묘원 옆 1천여 평에다 매실나무 1천여 그루를 작년부터 심기 시작하여 올 봄까지 심었는데 작년에 심은 나무에는 벌써 매실이 달렸다고 자랑하며 필자를 안내했다.

심교장은 “교단에서 퇴직 후 조상 가족묘원 조성하고 조상 산소를 먼 훗날까지 잘 보살펴 줄 위토 전답을 마련해 놓은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자랑하며 부인으로부터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들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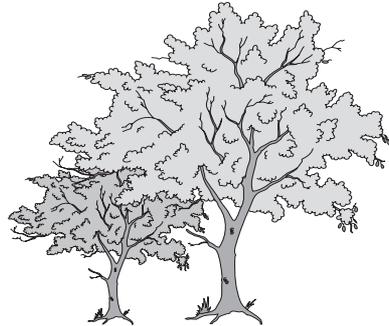
산수(傘壽 : 나이 80세를 이르는 말)를 바라보는 나이에 웬 매실나무를 심느냐는 필자의 핀잔 섞인 물음에 심교장은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하여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로 대답했다. 그리고 고향마을인 마천리(麻川里)와 마을 뒷산 국사봉(國師峰)의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랑했다.

심교장의 아호(雅號)도 고향마을 이름을 따서 마천(麻川)선생이라고

부르는 마천마을은 국사봉 바로 아래에 있다. 지금의 마천리는 원래는 ‘마아래’라고 부르다가 마천리로 변천되었으며 18세기 전반기에는 남원 양씨와 청송 심씨인 심도사가 개척하여 삼(麻)이 많고 마을 중앙에 내(川)가 흘러 ‘마래(마천)’라 하기도 하며 또한 국사봉 남쪽 아래에 있어 ‘피아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 뒷산 상에 있는 국사봉(726.6m)은 큰 능선 없이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고려시대 국사(國師)였던 두운대사가 이 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국사봉이라 했다.

현재 마천리는 30여 農家가 평온한 마을을 형성,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으며 국사봉의 정기를 받아서 인지 이 마을 출신들이 유달리 교육계·관계·재계·정계인사들이 많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태백 정연복



靑松警察署長 沈德輔 人事드립니다.

종가 어른신 그리고 종회 회원 여러분!

2010년 7월 2일자 청송경찰서장으로 발령 받은 26대손 심덕보(안효공의 후손 풍덕공파)입니다.

제 고향은 경북 포항이지만 꿈에도 그리던 선조님의 향기가 어린 청송군의 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선조님들의 인도가 계셨기에 오늘의 이러한 영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심문은 조선의 명문가로서 그 명성을 다하여 왔으며, 저 또한 선조님들의 치적에 누가 되지 않는 공직자의 길을 걷고자 하던 중에 외람되게 선조님들의 고향에서 치안 수장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조 오백년 동안 우리 선조님들의 고향이지만 우리 심문이 이 지역 고을 수장이 되어 부임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제가 이번에 청송 고을의 치안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은 선조님들의 인도가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종가 어른신 그리고 종회 회원 여러분!

저는 선조님들의 고향 청송을 위하여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외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일족 여러분!

청송을 찾아 오셨을 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 주십시오. 기꺼이 제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저의 휴대폰 전화는 011-383-3422입니다.

종가 어른신, 종회회원 그리고 우리 청송심문의 일족 여러분!

항상 건강 건강하시고, 우리 청송심문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합니다.

26대손 청송경찰서장 沈德輔 올림

先祖님 행적자료 수집안내

자료수집 취지

安孝公宗會誌로 지난번에 발간된 山義室記에는 시조부터 10세조까지의 선조님들 행적이 수록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1세조 이후 先祖님 들의 행적을 수록하고자 하오니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 참고사항에 따라 금년 8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범 위** : 안효공파 11세조 이하 선조님(단 생존자는 제외)
(10세조 이상 선조님들의 자료도 장래를 위해 접수하겠습니다.)
- 내 용**
 - ㉠ 선조님 들의 행장, 비문, 시장, 묘지문 등(漢字로 된 원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번역문도 함께)
 - ㉡ 선조님 들의 이력, 행적, 공적사항 등(충의, 효행, 정렬, 애국행위 등 포함)
 - ㉢ 묘소, 묘비, 영정, 정려, 유필, 유고, 유품 등(가능하면 천연색사진 또는 복사물로 제출가능, 인적관계, 위치, 향사일 등 관련사항 명시요망)
- 제 출**
 - ㉠ 작성자, 제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명기요망
 - ㉡ 제출처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86-3 창송심씨 안효공종회
우편번호 : 442-880 전화번호 : 031-253-8060/254-8040

청송심씨 안효공종회 산의실기 편찬위원회 드림

중랑웨딩문화원

고객의 믿음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중랑웨딩문화원

품격있는 클래식한 웨딩홀.

여유로운 피로연, 하객의 편의 시설까지...

靑松沈氏 소개로 오시는 모든 고객님께 특별한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최고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중랑웨딩문화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일동은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7-2번지 (금란교회 맞은편) 망우사거리

※셔틀버스운행(상봉역 → 수시운행)

※주차시설 동시주차(500대) 가능

◆예약문의

TEL : 02) 432-9000

FAX : 02) 2207-8151

대표 심 유 섭

록키산맥 일대

세계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얼마나 더 큰지 얼른 짐작이 안 간다.

전에 만주를 기차로 여행해 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가도가도 산 하나 보이지 않는 광야라고 하던데, 미국 땅을 비행기로 횡단하면서 내려다보니 그야말로 가도 가도 사막이고 가도가도 산과 산이며 또 가도가도 넓은 평야와 그 가운데 거미줄 같은 도로로 연결된 불빛 찬란한 취락의 연속이다. 미국의 땅 넓이가 우리 한반도 전체 넓이의 42배도 더 넓게 크다는 것을 족히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그 크다는 이유 때문에 포용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은 비행기에서 내려 지상의 곳곳을 돌아보는 중에 더욱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으니 그 중 우선 록키산맥 일대의 몇 곳을 여기에 소개해 보자.

① 에반스산 : 북미내륙의 척추인양 남북으로 내려 뻗은 록키산맥 중에는 최고봉인 맥킨리산(6,195m)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고산들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많은 국립공원·유적지·레크레이션센터 등이 있는데 그 거대하고 광활한 자원과 수식(修飾)에 접해서는 벌어진 입이 닫혀지지 않을 지경이다.

그 중에서도 덴버시 서쪽에 있는 에반스산(4,348m)은 그 산정에 까지 아스팔트 대로를 깔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포장도로임을 자랑하였는데, 이 길을 따라 차를 타고 산에 오르는 동안 이 산의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白頭山)보다 1.5배나 되는 것임을 알게되자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산으로 향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울창한 삼림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군데군데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 피크닉객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점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면서 수목이 고산의 특징대로 지구대를 형성하여 정상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많은 거목들이 비바람에 시달려 썩고 마르고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한라산(漢拿山)의 고산지대와 비슷하였다.

산정에 닿으니 8월의 한여름인데도 간간이 눈이 휘날리고 있고 여기 저기에는 얼음 덮인 암반이 햇빛을 반사하여 유난히 반짝이는데 조망대 앞의 넓은 주차장에는 많은 승용차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즉각 느껴지는 것은 대기 중의 산소가 현

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으니 호흡할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담배도 잘 빨리지 않았다. 상정의 조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마침 흐린 날씨 때문에 사방에 뻗은 크고 작은 산들이 자욱한 안개 속에 묻혀 있는것 뿐이어서 유감이었다. 하산 길에 특히 눈에 띄었던 곳은 옛날 콜로라도의 금광시대에 수많은 황금 광들이 모여들어 흥청대던 광산도시인 센추럴시와 골든시였다.

이 두 곳은 모두 시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주위의 산야에는 여기 저기에 금광석을 파내던 갱구(坑口)와 황금 빛깔의 흙무덤이 보이고 한편에는 낡은 마인?밀(정광소)시설이 바랜 간판과 함께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지난날의 전성시대를 일목에 보는 듯 하였다.

비록 이 두 도시(?)의 남아 있는 모든 건물과 시설들은 선물점이나 음식점, 주차주유시설, 왁스·뮤지엄 등으로 속이 바뀌어 있었지만, 그 마을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겉모습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서부영화의 어느 장면에서 익히 보았던 그런 풍경 그대로였고, 그렇기에 퇴락 한 옛 건물들 사이에서 갑자기 게리쿠퍼라도 뛰어나오면서 날렵하게 총을 쏘는 장면이 연출될 것만도 같았다.

② 레드 록 노천극장 : 록키산맥을 배경으로 천연물을 이용하여 만든 관광시설의 하나인데 이것 역시 덴버시 근교에 있다. 산맥의 동쪽, 사막 인근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거대하고 붉은 돌출암벽과 암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암봉들 중에서 적당하게 근접되어 있는 2개를 객석의 양쪽벽으로 삼아 그 사이에 1천석이 훨씬 넘는 계단식 좌석을 호형(弧形)으로 배치하고 객석정면에 넓적하고 완벽한 무대를 설치하여 자연미와 인공미가조화를 이루게 한 그야말로 천연의 노천극장이다.

덴버시로부터 거리는 차로로 20분 남짓밖에 안되지만 험준한 산 속에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이루어 놓고 연간 1~2회의 대연주회 등을 유치한다고 하니 그들 국민의 예술적 감각이나 여유 있는 자세가 감탄스럽기만 하다.

③ 로열 고지(협곡)공원 : 이곳 역시 록키산맥의 일부 천연 지형을 이용하여 방대한 광원을 조성한 관광지로서 덴버시 남쪽으로 1백20마일(약 4백리)쯤 되는 캐논시 근처에 있다.

해발 3천m가 넘는 넓은 고원지대에 강물줄기를 따라 굽이쳐 깎아지른 절벽골짜기가 있어 깊은 곳은 고원 지면

으로부터 강수면까지 4백m가 넘는 곳도 있는 그런 대협곡인데 이 일대에 각종관광시설을 마련해 놓고 즐িয়ে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의 웅대한 힘과 인간의 조화로운 지혜를 만끽하게 하는 일대장관의 관광공원이다. 지상에는 반마일 폭의 협곡을 횡단하는 관광 케이블카가 있어서 지난 8년 동안에 75만명을 실어 나른 실적을 자랑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길이 5백m가 넘는 대현수교(로열 고지교)가 가로질러 있어서 2차선으로 된 차도로 육중한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현수교의 특징대로 울동적으로 흔들려서 자못 스릴조차 느끼게 하였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 다리는 1년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쳐 1929년에 완성된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높이 1천 550피트) 현수교인데 이 다리의 건설 중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실 이 일대의 높고 험난한 지형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거대한 관광시설을 할 용기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웠고 또 그 공정 중에 안전이 염려되기에 충분하였다.

차에서 내려 일부러 도보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붉은 절벽 사이로 아득하게 깊은 협곡의 바닥에는 눈물줄기 같은 아칸사스 강물이 반짝이여 흐르고 있고 그와 평행으로 실오라기 같은 철로가 놓여 있어서 그 위로 장난감 같은 리오·그란데 기차가 낭만을 뿌리며 지나가고 있다.

다리 입구의 한쪽에는 이 협곡의 바다까지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사면승강차(인크라인 트레일웨이)가 있어서 분주하게 오르내리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기에 호기심에 이끌려 타고 내려가 보았다. 이 차는 마치 여러 개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층계 모양으로 엮어 연결하여 레일 위에 얹어놓고 로프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형태의 것이었는데, 이 차로 바닥에 내려가 보니 다리 위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실오라기 같은 철로도 아니고 눈물줄기 같은 강줄기도 아니어서 그 규모의 장대함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이 공원지역에는 넓은 피크닉장이며 순록방사장·전망대·촬영대·휴게소·간이음식점·기념품상점 등이 수없이 많고 한편에는 미니기차를 공원 내에 운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서부개척시대의 유물인 최후의 협곡기관차를 전시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있었다.

理事 英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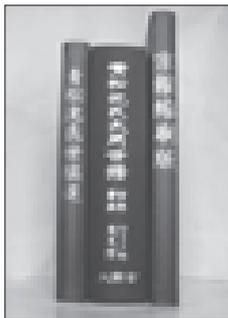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흥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세까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人事

오택 : 기획재정부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
 현섭 :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
 규식 : 한국철도공사 운용팀장
 지호 : 한국철도공사 승무사업소장
 경우 : 노동부 노동행정 연수원 교육협력관 승진
 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혜영 : 성결대 학술정보관장겸 다문화 통합연구소장
 갑섭 : (사)한국방송인회 이사
 재환 : 외환은행 동판교 개설준비 위원장
 화진 : (현)성신여대총장 국립발레단 이사장 임명
 욱기 : 북전주 세무서장
 온섭 : 심판사무1과장
 우영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원관리부장
 덕보 : 경북 청송경찰서장
 우강 : 두산 캐피탈 임원승진
 상만 : 행안부 광주정부통합 전산센터 보안관리과장
 성욱 : 예금보험공사 3급 승진
 순보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장
 재운 : 코리아타임스 문화체육부장
 기갑 : 기업은행 Pre-CEO
 심호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장
 재곤 : 금융기금 감사국 4과(4급)
 종섭 : 국무총리실/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파견

任 員 會 費

相翰	2010	50,000	쌍문동
相貴	2010	50,000	정읍
相鶴	2010	50,000	증평
在均	2010	50,000	光州
永澤	2010	50,000	일산
相八	2010	50,000	光州
石浚	2010	50,000	光州
憲燮	2010	50,000	光州
在益	2010	50,000	光州
左輔	2010	50,000	인천
載重	2010	50,000	대전

宗 報 贊 助

有燮	100,000	망우웨딩홀
택근	50,000	당진
극택	50,000	연희동
固城.宗親會	100,000	경남
彦村	100,000	수원
진섭	30,000	수원
춘섭	100,000	마산
영섭	50,000	부평
종섭	30,000	경산
상필	50,000	김포
재성	15,000	마산
평택	30,000	남인천
金堂山宗會	400,000	光州
상기	20,000	동두천

- 恭肅公養父 康主簿公 奉享會 -

- 獻誠金 -

相八 奉享會 副會長	10,000,000
龜尾 宗親會	300,000
種福 奉享會 總務	200,000
相厚 理事	50,000
載緒 理事	100,000
載勳 理事	500,000
信川公宗會(金浦)	5,000,000

◆ 송금구좌
 농협 084-02-198743 (총무 심종복)



第13回 梅月堂文學賞 대상 수상



▲ 시상식 장면

2010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3가 국립관
 웨딩홀에서 국제문화예술협회(강영훈 총재-前 국무총
 리)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매월당 김시습문학상 시상식
 에서 심의표 시인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沈宜杓 시인은 문교부장관표창, 대통령표창, 국민훈
 장 석류장을 수상한바 있으며 문학상으로는 제2회 세종
 문화예술상 문학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제1회 조지훈문
 학상 대상, 제4회 이육사문학상 대상, 제6회 좋은문학상
 본상,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문학상 대상 등 6회에 걸쳐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화제가 집중되고 있
 어 이를 소개한다.



沈載仁 社長

京畿新聞社 2010年 7月 15日 就任

沈德輔 署長

靑松警察署長 2010年 7月 2日 就任



當 選



6.2 지방선거 당선자

- ◎ 광역의회 의원
 - ▷ 대전 심현영 대덕
 - ▷ 경기 심노진 용인
 - ▷ 충북 심기보 충주
 - ▷ 경남 심규환 진주
- ◎ 비례대표의원
 - ▷ 경기 심숙보 약사
- ◎ 도의원
 - ▷ 경북 심정규 세무사
- ◎ 시의원
 - ▷ 수원시 심상호
 - ▷ 안양시 심재민
 - ▷ 동두천 심화섭

訃 告

沈學燮 (86세 前 大宗會 理事 여수)님
 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2010년 6월 26일 14시:30분

아들 : 在勳(金英心) 載桓(韓惠松)
 載鎭(金永珍)

딸 : 淸心(趙基成) 淸子(林正洙)
 英子(郭錦彩) 英心(崔魯先)

沈暎求 理事님 부인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연세대학병원 2010년 5월 25일

아들 : 寬植(金恩姬) 大植(董皓先)
 딸 : 媛植(辛承哲) 始植(金株鉉)

부산중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중회 2010년도 제34차 정기총회가 6월 27일(일) 서면에
 있는 경남공고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 총무 심영민 -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 화 번 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光	010-9236-2331
			琬澤	011-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합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송 금 안 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인터넷 족보 수단금 구좌 **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중회)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 화 : (02)2267-7857